

우리 성명(姓名)의 생성 발달에 대하여

도수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I

성씨의 기원(起源)을 알려주는 이른 시기의 기록이 중국의 옛 책(대략 3000여 년 전)인 『상서·요전(尙書·堯典)』에서 발견된다. ‘평장백성(平章百姓)’이란 문구가 바로 그것인데 아마도 최초의 기록인 듯하다. 여기서 우리는 ‘백가지 성’이란 의미의 ‘백성(百姓)’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百姓’의 ‘姓’에 대한 의미를 『설문해자(說文解字)』는

姓은 사람이 태어난 바이다. 옛날의 신령하고 성스러운 분들은(그의) 어머니가 하늘에 감응해서 자식을 낳았으므로 하늘의 아들(天子)이라고 불렀다. 태어남으로서 성이 되기 때문에(姓字는) 女字와 生字에서 비롯되었고 生은 또한 聲훈이다(姓人所生也 古之神聖人母感天而生子故稱天子 因生以爲姓 從女生 生亦聲也)

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姓은 “사람이 태어난 바이다”(人所生也)란 뜻이다. 姓자의 구조가 ‘姓→女+生’과 같이 분석되니 “여자가 아기를 낳다”란 뜻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姓이란 말이 원시 시대의 모계(母系) 사회부터 비롯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姓자의 구조가 婚(혼), 姻(인), 嫁(가) 등 자와 더불어 女자변의 글자라는 데서도 그 계통이 여성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지』 「씨족략」에

(夏·殷·周) 3대 전에는 성(姓)과 씨(氏)가 나뉘어서 둘이었다. 남자는 씨를 부르고 부인은 성을 불렀다. 씨는 귀천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므로 귀한 자는 씨가 있고 천한 자는 이름은 있으나 씨는 없었다. 성은 혼인을 가늠하는 근거가 되므로 同姓, 異姓, 庶姓의 구별이 있었다. 씨는 같으나 성이 다르면 통혼할 수 있지만 성이 같고 씨가 다르면 통혼할 수 없었다. 3대 뒤에 이르러 성과 씨가 합쳐서 하나가 되었다(第1 「氏族序」: 三代之前 姓氏分而爲二 男子稱氏 婦人稱姓 氏所以別貴賤 故貴者有氏 賤者有名無氏 姓所以別婚姻 故有同

姓異姓庶姓之別 氏同姓不同者 婚姻可通 姓同氏不同者 婚姻不可通 至三代之後 姓氏合而爲一)

라고 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여 姓은 부인을, 氏는 남성을 호칭하기 위하여 생긴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여자에게만 불러졌을 뿐이다. 삼황오제(三皇五帝) 가운데 복희씨(伏羲氏), 신농씨(神農氏), 황제씨(黃帝氏)와 같이 동일하게 氏라 불렀지만 신농(神農)의 성은 그 어머니가 강수(姜水)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강(姜)이라 불렀고, 황제(黃帝)의 성은 어머니가 희수(姬水)에 거주한 연고로 희(姬)이었고, 순제(舜帝)의 성은 어머니가 요허(姚虛)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요(姚)이었다. 이처럼 씨와 성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氏는 귀인(貴人)에게만 있었고 그나마도 천한 사람(賤人)에게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氏는 귀천을 분별하는데 쓰인 존칭사이었다. 이렇게 씨와 성이 다른 뜻으로 하·은·주(夏·殷·周) 三代까지 쓰여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그 의미가 통합되어 '姓·姓氏'와 같이 동일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¹⁾ 姓과 氏가 다른 의미로 쓰인 근거가 우리말에서도 발견된다. 우선 낱말의 구조가 '성씨'일 뿐 '씨성'은 불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씨'는 김씨, 박씨, 설씨, 이씨 등처럼 모든 성에 접미할 수 있고 모든 이름에도 접미하는 보편성이 있는 존칭사인 데 반하여 '성'은 그렇지 않다. 가령 "그 사람 성(혹은 성씨)이 무엇이요?"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씨가 무엇이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현상은 '씨'의 어원적 의미가 귀천을 가리는 존칭사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황의돈(1935)의 견해대로 '姓'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상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姓·氏'는 적어도 3,000년 이전에 발생하여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기원전 250)부터 진 전한말(秦 前漢末)(서기 25)에 이르러서야 자리를 굳게 잡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다 훨씬 늦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 '姓'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이른 사서(史書)에 성씨에 관한 기록이 다음 장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기원 전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왕족 혹은 귀족만이 성씨가 있었던 것인데 그나마 기록 연대만큼 사실 연대가 소급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가 성씨의 생성 발달에 있어서

1) 『說文解字』「註釋」: 因生以爲姓若下文 神農母 居姜水 因以爲姓 黃帝母 居姬水 因以爲姓 舜母 居姚虛 因以爲姓 是也 感天而生者母也 故姓從女生會意 其子孫復析爲衆姓 如黃帝子二十五宗 十二姓則皆因生以爲姓也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의 문제도 이 글이 논의하여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우리의 이름에 대한 생성 발달의 문제도 고찰키로 한다.

이 글은 시기의 하한을 고려초까지로 한정하되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성명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그 이후의 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II

학자에 따라서는 ‘한씨’가 三韓(馬韓·辰韓·弁韓)의 韓에서 비롯된 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려운 견해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씨의 생성 시기와 그 배경이 중국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옛 문헌에 등장하는 왕족의 성씨마저도 중국보다 1000여 년이나 늦게 발생하였고, 평민에 대한 우리 성씨의 생성은 왕족(혹은 귀족)과는 달리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서야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최초의 성씨는 부여왕의 성명인 해부루(解夫婁)와 해모수(解慕漱)의 해(解)씨이다. 이 ‘해씨’는 보다 후대인 고구려의 시조성인 고(高)씨를 뛰어넘어 제2대 유리왕부터 제5대 모본왕까지 쓰이였다. 그리고 이 ‘해씨’는 백제의 왕족(그 원류는 부여왕족)인 해루(解婁), 해구(解仇), 해충(解忠)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는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박(朴)씨, 고구려 시조인 고주몽(高朱蒙)의 고(高)씨, 가라 시조인 김수로(金首露)의 김(金)씨이다. 백제의 시조는 성씨는 없고 이름만 ‘온조(溫祚)’로 남아 있을 뿐이다. 신라의 제4대왕 석탈해(昔脫解)와 김알지(金閼智)에서 김(金)씨와 석(昔)씨를 다시 추가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성씨들은 모두가 임금의 성이며 또한 해당 성씨의 시조(始祖)가 된다. 그리고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天帝子)란 의미에서 解씨라 하였고, 고주몽(高朱蒙)은 고구려(高句麗)란 나라 이름에서 高자를 따다 성을 삼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혁거세(朴赫居世)는 박처럼 생긴 큰 알에서 태어났는고로 朴씨라 하였고, 김수로(金首露)는 금알(金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金씨라 하였고, 김알지(金閼智)도 금궤(金櫃)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金씨가 되었다. 우선 박씨에 관한 발생 신화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에

고허촌장인 소벌공(蘇伐公)이 양산(楊山) 기슭에 있는 나정(蘿井) 부근의 숲속을 바라본 즉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기에 가보니 말은 간데 없고 다만 큰 알만 있을 뿐이었다. 알

을 깨어본즉 거기서 어린 아이가 나왔다. 소벌공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더니, 나이 10 여세가 되자 유달리 뛰어났다. 6부(六部) 사람들은 그 아이의 태어남이 신기하였던 까닭에 높이 받들더니 이 때에 이르러 그를 임금으로 삼았다. 진한인(辰韓人)은 瓠(호)를 ‘박’이라 하였는데 처음의 큰 알(大卵)이 박과 같았던 까닭에 ‘朴’(박)으로姓을 삼았다(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六部人 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

라는 ‘난생 신화’가 있다. 이병도(1980, 3 주3)는 “朴씨는 실상 혁거세(赫居世)의 赫(밖)에서 취한 것이다”라고 주석하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밖’(赫)과 ‘박’(瓠)이 동음이의어의 관계였기 때문에 ‘박’처럼 생긴 큰 알을 등장시켜 신화를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처음에는 ‘불구누리’(>밖늬)란 이름만 있었던 것인데 뒤날에 ‘밖’(<불구)과 발음이 같은 ‘박’(瓠)을 토대로 지어낸 신화로 보려 한다. 김알지의 탄생 신화도 동일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김씨의 문제는 잠시 미루어 뒤에서 고찰기로 한다.

『삼국사기』는 탈해니사금(脫解尼師今)에 대하여

누군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성씨를 알지 못하니 처음 상자가 바닷가로 밀려 와 닿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짓으며 따라다녔으니 작(鵲)자의 한 변을 생략하여 ㅍ으로 성씨를 삼고, 그 아이가 궤를 풀고 나왔으니 이름을 탈해(脫解)라 짓는다(或曰 此兒 不知姓氏 初續來時 有一鵲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 又解韁續而出 宜名脫解)

라는 전설을 소개하였다. 아마도 본래 鵲(작)자와 ㅍ(석)자의 옛음이 서로 비슷하여 티쓰이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 鵲(까치작)자의 글자풀이로 전설이 지어진 듯하다. 그의 이름 脫解(탈해)는 吐解(토해)로 다르게 표기되기도 하였다. 동일인의 이름을 이렇게 비슷한 음으로 달리 기록할 수 있음은 그것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유어를 음차 표기한 脫자를 해석할 수 있다면 吐자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둘다 절대 불가능함이 곧 脫자를 풀어서는 안될 강력한 이유이다. 더욱이 후부의 解자는 신라의 왕명에서 南解(남해), 奈解(나해), 沾解(침해), 訖解(홀해)와 같이 공통 요소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解자를 해석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解자를 해석할 수 없다면 그 앞의 脫자도 해석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여기까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그의 성씨가 전설과는 무관한 고유어 ‘작·석(鵲·ㅍ)씨’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 중에

이에 왕은 왕후와 함께 침전에 들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아뢰기를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입니다. 성은 許(허)씨라 하옵고 이름은 황옥(黃玉)이오며 나이는 열 여섯살이옵니다”라고 하였다 (於是 王與后共在御國寢 從容語王曰 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

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여자의 성씨를 발견한다. 과연 남방의 아유타국왕의 성씨가 許씨였는지 의문스럽다. 이미 김진우(Kim 1983, 159-68)이 고찰한 바와 같이 그것은 ‘왕비’(queen)란 의미인 아유타국의 말을 차차 표기한 것으로 추정함직하다. 아마도 ‘허황옥=왕비·공주’(ishwari[hsü-huang-yü]=goddess, queen)이었을 것이다.²⁾ 더욱이 우리에게 예로부터 여자는 성씨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고구려에서 유리왕의 어머니를 예(禮)씨라 한 예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씨의 딸이라고도 하였으니 오직 아버지의 성씨일 뿐이다. 그리고 대무신왕(大武神王)의 어머니도 송(松)씨라 하였지만 역시 다물국왕(多勿國王)인 송양(松讓)의 딸이니 아버지의 성씨이다. 신라에서는 알영부인(閼英夫人), 운제(雲帝)부인, 아루(阿婁)부인, 아효(阿孝)부인이라 불렀다. 따라서 옛문헌에 혹시 여자의 성씨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성씨일 따름이다.

위와 같이 한국의 성씨는 나라를 세운 시조나 왕으로부터 비롯되어 내내 왕족이나 그 후예들에게만 쓰여 왔을 뿐이다. 그러나 평민들은 그나마 이름만 있었을 뿐 성씨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동명성왕이 이름만 있고 성이 없는 재사(再思)에게 극씨(克氏)를, 武骨(무골)에게 중실씨(仲室氏)를, 묵거(默居)에게는 소실씨(少室氏)를 내려 준 사실과 유리왕이 사물(沙勿)에게 위씨(位氏)성을, 두 어깨에 깃이 달려 있는 ‘이상한 사람’(異人)에게 우씨(羽氏)란 성을 내렸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왕이 지어준 성(이른바 賜姓)은 당대에서 끝났을 뿐 대대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그것은 전통적인 개념의 성씨와는 달리 개인의 이름처럼 쓰였던 성일 뿐 계승성이 없었던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과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고대 네 나라의 초기에 박

2) Kim(1983, 164-165): “There is some linguistic speculation one can make. Sura in Sanskrit means ‘god, king.’ Alternatively, suwarna means ‘gold,’ and in Yusa, King Suro is born in a golden egg! And 許黃玉 in Chinese reads *hsi-huang-yü*. Could it be a derivative of Sanskrit *ishwari* meaning ‘goddess, queen’?”

(朴)·석(昔)·김(金)·고(高)씨가 실제로 있었던 것인가? 이런 의구심은, 이 사실을 전하여 준 두 역사책이 비교적 후대인 서기 1145년과 1285(?)년에 저작되었는지라 후대에 만들어 낸 이야기를 실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좀체로 해소되지 않는다. 위에서 우리는 박씨와 석씨의 기원설이 신화적 허구일 것으로 추상하였다. 여기서 다시 김수로(金首露)와 김알지(金閼智)의 김씨는 과연 처음(기록상의 발생년대)부터 김씨이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성씨 역시 초기에는 박씨와 석씨처럼 고유어 '쇠씨'로 나타나야 한다. 신라어 가라어로 金을 '쇠'라 하였기 때문이다. 마치 元曉로 표기하고 부르기는 고유어 '설'로 호칭하였듯이 표기어이었던 김씨의 金도 '쇠'로 호칭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더욱이 보다 훨씬 후대인데도 고구려의 고국원왕의 이름이 '쇠'(劉/斯由)로 나타나고, 신라 진지왕의 이름이 '쇠돌이'(舍輪/金輪)로 나타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 두 김씨만은 '쇠씨'로 부른 흔적이 고문헌이나 금석문(金石文)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씨는 한자어의 성씨가 성립한 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온당하다. 그 객관적인 이유 한 둘을 다음에 더 들도록 하겠다.

다음에서 우리는 고유어를 표기한 차자(한자)들이 한자어로 둔갑되어 풀이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국명인 徐羅(서라)의 이표기였던 '사로(斯盧), 사라(斯羅), 시라(尸羅), 신라(新羅)' 중에서 新羅를 가려내어 "新은 덕업(德業)이 날로 새로운 뜻이며, 羅는 사방(四方)을 망라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新羅)으로 국호를 삼음이 좋사옵니다(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義矣)"란 해석을 붙여 국호를 한자어로 개조한 기사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지증마리한 4년 서기 503)에 실려 있다. 그리고 비록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백제 시조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필자가 국호로 주장하는) 溫祚(온조)도 '十濟·百濟'(십제·백제)로 달리 표기한 것일 뿐이며 모두 '온조(제)'로 불렸다. '十'과 '百'의 옛새김이 '온'이었기 때문이다. 옛문헌에 溫祚가 殷祚, 恩祖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니 溫: 殷: 恩과 祚: 祖: 濟는 각각 동일음을 표기한 한자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十'과 '百'에 대한 옛 낱말이 '온'이었기 때문에 표기어인 '十濟, 百濟'는 백제어 '온조(제)'로 추독할 수 있다. 위의 '新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十濟, 百濟'도 고유어 '온조'를 달리 적었던 것인데 후대에 十濟를 "십신으로 보익을 삼아 국호를 십제라 하였다"(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라고 해석한 사실과 百濟를 "올 때에 백성이 즐거워 좃았으므로 후에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라고 해석한 기사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에 실려 있다.³⁾ 위 시조들의 신화에 나타나는 성씨들도 동일 방법에 의해 후대에 조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서기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대왕비문」에 추모왕(鄒牟王), 유류왕(儒留王), 대주류왕(大朱留王) 등의 왕명은 적었으면서도 왕의 성씨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왕족도 성씨가 없었던지, 있었다 하더라도 성씨를 중국처럼 즐겨 쓰지 않았기 때문임을 암시하는 증거라 하겠다. 평민의 성씨는 더욱 그랬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을 수행한 세 친구 조이(鳥伊), 마리(摩離), 협부(陜父)도 성이 없고 유리명왕(琉璃明王)과 함께 내려 온 옥지(屋智), 구추(句鄒), 도조(都祖)도 성이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解씨만이 부여왕이었던 해부루(解夫婁)와 해모수(解慕漱)에서 비롯되어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부터 제5대 모본왕까지 쓰였을 뿐만 아니라 유리명왕의 태자(太子) 이름까지도 해명(解明)이었다. 한편 다른 일파인 해루(解婁), 해구(解仇), 해충(解忠) 등이 백제의 귀족 중에서 발견되므로 해씨만이 고구려와 백제에서 왕족 성으로 계승되었을 뿐이라 하겠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고구려의 왕성이 해씨인데 그 지파인 백제의 왕성은 부여씨(扶餘氏)란 점이다. 이것은 고구려 신라 가라와는 달리 복성(複姓)인데다 백제의 중기인 아신왕(阿莘王 서기 392-404) 때에야 나타나는데 그마저 중국의 역사서에만 적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백제의 뿌리가 되는 북부여의 왕성이 해씨이고 그 지파인 고구려의 왕성 역시 해씨이었으니 다른 한 지파인 백제의 왕성도 해씨여야 마땅하다. 『삼국유사』 「남부여조(南扶餘條)」에

그의 세계(世系)가 고구려와 같이 부여(扶餘)에서 나왔기 때문에 解로 성씨를 삼았다(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故以解爲氏)

라고 밝혀 놓기도 하였으니 아마도 부여씨(扶餘氏)라 부르기 전에는 해씨로 불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집작킨대 백제의 왕성은 전기에는 단성(單姓)인 해씨로 부르다가 후기에 이르러 복성(複姓)인 부여씨로 바뀌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왕성의 복성화(複姓化)는 민간에까지 영향을 끼쳐 평민의 성씨도 후기에는 복성으로 변하게 되었다. 백제 사람인 목협만치(木脇滿致, 조미걸취(祖彌架取)의 '목협'과 '조미'를 『삼국사기』 「세주(細註)」는 복성이라 하였고, 재증걸루(再曾架婁), 고이만년(古尔萬年)의 '재증'과 '고이'도 복성이라 하였다.⁴⁾ 이밖에도 진모(眞

3) 이병도(1980, 353)는 주2에서 “처음에 국호를 十濟라 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후일의 조작이다. 초기의 국명은 그 國都名에 따라서 慰禮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주5에서 “『隋書』 「東夷傳 百濟條」에는 ‘初以百家濟海 因號百濟’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설은 모두 후일 백제인의 附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도수희(1991, 27-51)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였기에 자세한 논증은 그 논문으로 미룬다.

牟)씨, 사택(沙宅)씨, 아택(阿宅)씨 등을 더 열거할 수 있다. 그것이 비록 후기에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백제의 복성은 백제만의 특유한 존재이었다. 고구려 신라 가라에는 복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흔히들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과 천개소문(泉蓋蘇文)의 성을 '乙支', '泉蓋(혹은 淵蓋)'와 같은 복성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성인 '乙씨'와 '泉씨'일 따름이다. 『삼국사기』 「개소문전」이 그의 성이 '천씨'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및 손자들의 성도 천남생(泉男生), 천남건(泉男建), 천남산(泉南産), 천헌성(泉獻誠), 천헌충(泉獻忠)과 같이 '泉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씨를 생각한 표기가 여러 옛 문헌에 '蓋蘇文'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도 '泉씨'임을 확신케 하여 준다. 을지문덕 역시 을두지(乙豆智), 을음(乙音), 을소(乙素), 을파소(乙巴素), 을불(乙弗) 등과 함께 '乙씨'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지문덕(支文德), 개소문(蓋蘇文)'과 같은 세글자의 이름이 '불구내(弗矩內), 유리명(琉璃明), 어지지(於只支), 물계자(勿稽子), 창조리(倉助利), 아버지(阿非知), 아사달(阿斯達), 아자개(阿慈介)' 등처럼 많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신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네 개의 「진흥왕국경순수비문」(서기 568)과 「경주남산비문」(서기 617)에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이름에도 성씨가 없다. 「냉수리비(冷水里碑)」(서기 443 ?)에 21인의 이름과, 「울진봉평비(蔚珍鳳坪碑)」(서기 524)에 35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역시 이름만 있을 뿐 성씨는 없다. 삼국시대의 거도(居道), 솔거(率居), 녹진(祿眞), 밀우(密友) 등도 성씨없이 이름만 적혀 있다. 이 또한 성씨가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은 증거라 하겠다. 그렇다면 신라 유리왕 9년(서기 32)에 '李, 崔, 孫, 鄭, 裴, 薛' 등의 6성을 내렸다는 기사는 후일 어느 팬가의 조작일 가능성이 짙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명에 어느 성씨도 쓰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 흥덕왕(興德王 서기 828) 때의 장보고(張保臯(/高))의 본 이름은 활보(弓福(/巴))인데 『삼국사기』는 그의 고향과 조상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그의 성씨를 중국에서 지어 주었다. 그에게 성씨를 물었을 때 없다고 하니까 마침 중국 성씨 중에서 '弓'자변의 한자를 찾다보니 '張'자가 선택되었고, '福'을 한자음을 빌어 중국식으로 적다보니 保臯(보고)가 되었다. 만일 그에게 성씨가 있었다면 중국에서 새삼스럽게 성을 張씨로 지어 주었을 리 만무하다. 고구려의 바보 溫達(서기 559-90) 역시 성씨가 없다. 이는 상당히 후대에 이

4) 『三國史記』 「蓋鹵王 21年」: 文周乃與木荔滿致祖彌桀取(木荔祖彌皆複姓 隋書以木荔爲二姓 未未知孰是) 南行焉 至是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余萬年(再曾古余皆複姓)等 帥兵來攻北城 七日而拔之 (中略) 桀婁萬年本國人也 獲罪逃竄高句麗

르러 한국의 성씨가 대부분 이렇게 발생한 사실을 알게 하는 암시라 하겠다.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박·석·김·설씨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성씨를 모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왕족의 후예 이외에는 성씨가 없었던 때문에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백제왕의 경우도 국내 역사서와 『일본서기』에는 이름만 적혀 있고 성씨는 없다. 다만 중국의 역사서에만 제17대 아신왕(阿莘王 서기 392-404) 때부터 여(餘)씨는 혹은 부여(扶餘)씨로 이름 앞에 왕성이 나타날 뿐이다. 이런 사실은 평소에 성씨가 활발하게 쓰이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렇듯 중국의 역사서에만 성씨가 나타남은 성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식에 따라 중국인이 기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역사서에 백제에 ‘沙씨, 燕씨, 荔씨, 解씨, 眞씨, 國씨, 木씨, 苗씨’와 같은 팔대성(八大姓)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찾아보면 荔씨와 木씨는 발견되지 않고 나머지 성씨만 귀족성으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일본서기』에 목만치(木滿致), 목윤귀(木尹貴)가 나타나고 역시 일본의 옛문헌인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도 목귀(木貴)가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고구려, 신라와는 달리 백제에서는 귀족의 성씨가 활발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온달전」(溫達傳)의 주인공 온달을 고씨(高氏)에게 장가보낸다는 기사가 있고, 을파소, 을지문덕 등과 천개소문, 천남산 등에서 성씨가 확인되니 아마도 삼국시대 말기쯤에는 성씨가 민간인(혹은 귀족)에게도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 원효(元曉)대사의 元曉도 이름이 아니라 고유어 ‘설’ (정월 초하루날의 뜻)씨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그의 아들의 성명인 설총(薛聰)에서 ‘설’ 씨를 발견할 수 있다. 元曉는 곧 元旦(원단)이란 뜻이기 때문에 고유어 ‘설’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으니 한자를 빌어 元曉라 적고 반드시 ‘설대사’라 불렀을 것이다. 원효대사는 신라말기의 사람으로서 당나라에 가려다 포기하고 국내에만 있었기 때문에 고유어 성씨인 ‘설’을 썼던 반면에, 당나라에 오래 머물러 살았던 최치원(崔致遠 서기 857-?)과 장보고(張保臯)는 한자어 성씨를 썼던 것이라 하겠다. 장보고의 張씨는 당나라식으로 지어진 성씨임을 위에서 설명하였고, 崔씨 또한 『삼국사기』 「열전」에서 그의 세계(世系)를 모른다고 하였으니 역시 당나라식 성씨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렇게 후대에 이르러 국내의 고유어 성씨와는 다르게 한자어 성씨가 생성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이 중국식 한자어 성씨가 우리의 고유어 성씨를 한자어로 바꾼 원인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고구려 말기의 인물인 천개소문(泉蓋蘇文)에 대한 『일본서기』의 기사에 그의 성씨

가 '이리'로 적혀 있다. 이것은 泉에 대한 고구려어 '얼'(於乙)과 일치한다. 여기서 우리는 고유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차차하여 泉으로 적고 '얼'씨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성명을 한자로 표기하였으되 부르는 반드시 고유어로 호칭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신라 지증왕 때(서기 503)에 '사라~사로~시라~서라'라 부르던 나라 이름을 한자어 신라(新羅)로 바꾸고, '마리한, 니사금'이라 불려 온 존칭을 왕(王)으로 부르도록 고치기 이전까지는 관직명, 지명, 성명 등 모든 어휘를 고유어로 말하였다. 그 이후로 서서히 순수한 고유어가 한자어의 침식을 당하였지만 고유어를 쓰는 강한 전통은 여전히 지켜졌다. 여기서 우리는 조상들의 고유어 수호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쏠씨도 '해씨, 고씨, 박씨, 석(작)씨'처럼 일단 고유어 성씨로 호칭되어 오다가 어느 시기인가 한자어 성씨로 변하였거나 아니면 후대에 처음부터 쏠씨로 출발한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옛문헌의 기록대로라면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삼국 초기에 왕족에게만 성씨가 있었고, 평민들은 성씨가 없다가 삼국말기 아니면 거의 통일 신라 후기에 이르러서야 성씨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고려 초기에 들면서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의 시조들의 성씨조차도 신화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실질적인 생성 시기는 훨씬 후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III

신라 시조의 이름은 혁거세(赫居世)라 적고 불구내(弗矩內)라 불렀다. 赫은 '발거'이며 居는 '발거'의 '거'를 표기한 음차자다. 따라서 赫居는 '발거'로 풀어 읽을 수 있고 그래야 신라사람들이 부르던 이름 '불구(弗矩)와 비슷한 해독이 된다. 이 '불구~발거'는 光明을 뜻하는 신라말이다. 다음은 '內:世'의 대응에서 世는 '누리'이니 '내(內)는 누리의 변화형 '뉴'를 음차표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赫居世는 '발거뉴~발거누리'이다. 이 '발거누리'에서 '누리'만 떼어내어 지은 이름이 신라 제3대의 누리니사금(儒理尼師今)이다. 제14대의 왕명도 누리(儒禮)인데 『삼국유사』는 이 '누리니사금'을 세리지왕(世里智王)이라 달리 적기도 하였다. 여기 世로는 '세리'로 음독하면 말이 안되니 반드시 '누리'로 읽으라는 뜻으로 '리(里)'를 받쳐 적었다. 이 표기법은 赫居의 '居'가 '혁거'로 읽지 말고 반드시 '발거'로 풀어 읽으라는 부호로 赫을 居로 받쳐 적은 경우와 같다. 이 '누리(世里)로 인하여 우리는 儒理가 '누리'임을 확신하게 된다. 만일 제19대 눌지마리한(訥祗麻立干)의 '눌'이

말모음 탈락으로 인하여 '누리'를 '누리'로 변화한 것이라면 '누리'란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에서는 적어도 '누리'란 이름이 시조로부터 4대에 걸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고구려의 제2대 왕명인 유리명왕(琉璃明王)의 琉璃 또한 '누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까지 '누리(世)'가 초기 왕명의 소재로 쓰인 사실을 알게 된다.

만일 위의 琉璃가 고유어 '누리'를 적은 것이라면 바로 뒤의 '明'도 고유어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동일왕명을 앞 부분만 고유어로 부르고 뒤 부분은 한자어로 불렀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혁거세(赫居世)의 赫居가 광명(光明)의 뜻으로 풀리어졌으니 이것 역시 '발거' (明)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누리'가 신라 시조의 이름과 제3, 14, 19대 왕의 이름에 박혀 있고 나아가 고구려의 제2대 왕의 이름에까지 박혀 있으니 '발거' (赫居)가 신라 시조의 이름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발거' (明)가 역시 고구려의 왕명속에도 들어 있음은 오히려 당연한 바라 하겠다. 또한 동명성왕(東明聖王)의 東明에서 東은 고유어 '새'로 혼동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명(東明)은 '새발거'인 고유어로 추독하게 된다. 이후로 고구려에서는 유리명왕의 태자(太子)인 해명(解明)을 비롯하여 문자명왕~명치호왕(文咨明王~明治好王), 신라에서는 신문왕의 이름인 정명왕~명지왕(政明王~明之王), 백제에서는 성명왕(聖明王)~명농왕(明農王)과 같이 '발거' (明)가 후대 왕명 속에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 소지왕(昭知王)을 '비처왕' (毗處王)이라 불렀다 하였으니 '비처'는 '昭, 光'을 뜻하며 신문왕의 아명도 일소(日炤)이었으니 역시 '날빛'에 해당한다. 그리고 백제 聖明王의 아들인 위덕왕(威德王)의 이름이 창(昌)인데 이것도 '빛'을 소재로 한 이름이다.

위에서 풀이한 바와 같이 삼국 시대의 왕명은 초기부터 '밝음' (明), '빛' (光)과 '누리' (世)를 소재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혁거세(赫居世)=불구내(弗矩內)를 '발거누리~불거누리'로 추독할 때 동명성왕(東明聖王)의 '東明'은 '새발거~새불거'로, 유리명왕(琉璃明王)은 '누리발거~누리불거'로 추독할 수 있다. 특히 '발거누리'와 '누리발거'의 어형을 비교하여 보자. 참여한 형태소들은 동일한데 순서만 앞뒤로 바뀐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참여의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이름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소와 그 어의는 거의 완벽하리만큼 동일하다. 이런 동질성이 신라의 시조 및 제3, 14, 19대 왕과 고구려의 시조 및 제2대 왕의 이름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결코 예상외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기본 어휘의 분포가 얼마나 더 있는지를 발견하는 작업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긴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 왕명의 소재인 '밝음, 빛, 누리'가 후대에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고구려 시조의 아명은 주몽(朱蒙)이다. 이름 '주몽'은 '명사수'란 뜻이다. 그가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신라 사람인 장보고의 이름이 弓卜(巴)로 표기되어 전하지만 당시의 신라말로는 '활보'로 불렸을 것이다. 또한 아래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사복(蛇卜)'은 뱀처럼 기어만 다니기 때문에 '뱀보'라 불렸다. 모두가 '활동, 동작'을 소재로 지어진 이름들이다.

백제 시조의 이름인 온조(溫祚)는 '광활, 넓고闊'을 의미한다. 그의 형이름은 '비류'(沸流)이다. 이 이름은 고구려의 처음 수도인 졸본천(卒本川)의 지류명인 비류수(沸流水), 비류천(沸流川), 비류곡(沸流谷), 비류국(沸流國)의 沸流에서 유래한 작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서기』의 백제 무령왕(武寧王)에 관한 기사 중에

백제의 무령왕이 일본의 축자각라도(筑紫各羅島)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백제사람들이 그를 사마(斯麻)라 불렀고 그가 태어난 섬을 니리무세마(主嶋)라 불렀다

라고 작명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사마'는 백제어로 섬(島)이란 뜻이라 풀이하였다. 마치 고마(熊)가 변하여 '곰'이 되었듯이 사마(島)가 변하여 오늘날의 '섬'(島)이 된 것이다. 그리고 '니리무'(主)는 '니리무 > 니림 > 니임 > 남'과 같이 변하여 오늘날의 '남'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섬에서 태어난 까닭으로 이름을 '사마'(>섬)라 지었음이 독특하다. 박혁거세의 왕비 알영(闕英)부인은 闕英井에서 闕英을 따다 지었고, 김유신의 아내 이름인 '재매'(財賈)는 財賈井에서 따다 지었다. 그리고 유리왕은 사물택(沙勿澤)이란 곳에서 만난 신하에게 지명 '사물'(沙勿)로 이름을 지어 주었다. 위 이름은 모두가 '지명, 지세, 자연'을 소재로 한 작명들이다.

신라 제25대 진지왕(眞智王 576-578)의 이름은 사륜(舍輪) 혹은 금륜(金輪)이다. 우리의 고유문자가 없어 한자로 표기하였지만 그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발음은 신라말 즉 고유어로 불렸던 것이다. 그 고유어가 무엇이겠는가. 옛말로는 '금·은·동·수은' 등의 쇠붙이를 통틀어서 '쇠'라 불렀음을 위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신라의 장군인 素那(소나)(서기 675)를 金川(금천)으로 적기도 하였다. 여기 素:金의 대응을 근거로 金의 새김이 '쇠'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보다 1세기전의 사람 이름에서 '솨(사):金(금)'이 대응하고 있으니 '金'을 고유어 '쇠'로 새길 수 있음을 더욱 확실케 한다. 그러면 輪은 어떻게 고유어로 풀 수 있을까. 신라 초기에 소벌도리(蘇伐都利)란 이름이 있었다고 『삼국유사』에 적혀 있다. 이 이름은 소벌공(蘇伐公)이라 달리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도리=公'이다. 이 '돌이'는 '꿈돌이, 호돌이, 꾀돌이'와 같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쓰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위의 輪을 돌

다(바퀴)의 새김으로 푼다면 숨輪=金輪은 ‘쇠돌이’가 된다. 오늘날 흔하게 호칭되는 ‘쇠돌이’의 연원이 통일신라 이전까지 소급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자의 존귀한 이름이었다. 고구려 제16대 고국원왕(서기 331-370)의 이름이 ‘쇠’ (斯由/釧)이었다. 그가 남달리 40년 동안이나 닦음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몸이 쇠처럼 단단하였던 모양이다. 거의 250년이나 이른 시기의 이름인 ‘쇠’로 미루어 볼 때 훨씬 후대의 왕자 이름에 ‘쇠’가 들어 있음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인명에 접미하는 인칭 접미사로 ‘부’ (夫)와 ‘지’ (智)가 있었다. 거칠부(居漆夫), 이사부(異斯夫), 심맥부(深麥夫=麥宗), 상부(相夫), 활보(弓巴·弓福)의 ‘보·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부’는 ‘바보, 뚱보, 울보, 웃음보, 놀부, 흥부’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까지 이어져 쓰이고 있다. 또한 알지(闕智), 내지(乃智), 모심지(牟心智) 등과 같이 ‘지’ (智)가 쓰였다. 이것은 오늘날에 ‘걸어지, 거지, 이치, 저치’의 ‘지·치’로 쓰이고 있다. 이 ‘부’와 ‘지’는 좌부지(坐夫智), 일부지(一夫智), 절부지(折夫智) 등과 같이 ‘부지’로 결합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부’ (智夫)와 같이 순서가 바뀌어 쓰인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보/부·지’는 인칭 의미로 이름짓는데 활용한 후부 요소에 해당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 4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고대 삼국의 왕명에서 선대 왕의 이름과 후대 왕의 이름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있다. 신라의 제2대와 제14대가 동일한 ‘누리왕’이다. 이 ‘누리’는 시조 발거 누리왕(赫居世王)과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다. 고구려의 왕명 중에서 동명성왕(東明聖王)과 유리명성왕(琉璃明聖王)의 이름에 동일한 ‘발거’ (明)가 들어 있다. 제3대 대해주류왕(大解朱留王)과 제17대 소해주류왕(小解朱留王)이 大·小만 없으면 동일명이다. 그리고 제16대 고국원왕(故國原王)과 제18대 고국양왕(故國壤王)에서 만일 ‘原:壤’이 ‘나’ (땅=地)의 의미라면 역시 동일명이다.

백제의 왕명도 제4대 개루왕(蓋婁王)과 제21대 근개루왕(近蓋鹵王), 제5대 초고왕(肖古王)과 제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 제6대 구수왕(仇首王)과 제14대 근구수왕(近仇首王)이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왕명이 이처럼 중복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백성들의 이름도 동일명이 중복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신라의 제2, 4, 12, 16대 왕명인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탈해니사금(脫解尼師今), 나해니사금(奈解尼師今), 첨해니사금(沾解尼師今), 흘해니사금(訖解尼師今)에 ‘解’가 거듭 쓰였다. 고구려의 제9, 11, 12, 13, 14, 18대 왕명인 고국천(양)왕(故國

5) ‘川:壤’의 대응 기록의 자료를 『삼국사기』(본기 제4, 5)와 『삼국유사』(권1 왕역 제1)에서 참

川(/壤)王), 동천(/양)왕(東川(/壤)王), 중천(/양)왕(中川(/壤)王), 서천(/양)왕(西川(/壤)王), 미천왕/호양왕(美川王/好壤王) 등에서 ‘천:양(川:壤)의 대응 표기가 발견된다.⁵⁾ 옛말에서 고유어 ‘냐’는 ‘川·壤’의 새김이었다. 동일 인명의 대응 기록인 ‘소나:금천(素那:金川)과 ‘심나:황천(沈那:煌川)에서 ‘냐(川)가 확인되고, 동일 지명의 대응 기록인 ‘골의노:황양(骨依奴:荒壤), 금물노:흑양(今勿奴:黑壤), 잉근내:괴양(仍斤內:塊壤), 어사내:부양(於斯內:斧壤)’ 등에서 ‘노·내(壤)가 확인되기 때문이다.壤의 새김인 ‘냐(那)는 고구려의 5부족명인 ‘관나부(貫那部), 환나부(桓那部)’에서도 확인되다. 물론 위 고구려 왕명들은 그들의 본 이름은 아니다. 고구려는 백제 신라 가라와는 달리 본명(아명)을 공식적인 왕명(시호)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동명성왕의 이름은 주몽(朱蒙)이고, 유리명왕의 이름은 여달(閻達)이고, 대무신왕의 이름은 무휼(無恤)이고, 민중왕의 이름은 색주(色朱)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고구려는 시호(諡號)를 지을 때 ‘냐’가 들어 있는 지명을 택하였음이 특이하다.

백제의 제2, 3, 4대 왕명 다루(多婁), 기루(己婁), 개루(蓋婁)에서 ‘婁(루)가 거듭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인명인 해부루(解夫婁), 모두루(牟頭婁), 해애루(解愛婁), 삼시루(聶矢婁), 미구루(味仇婁), 걸루(桀婁)와 신라 허루(許婁) 등에서의 ‘루’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돌림자가 아닌가 의심하여 본다. 이와 비슷하게 백제의 귀족 이름에서도 우수(優壽), 우두(優頭), 우복(優福), 우영(優永)과 같이 중복되어 쓰인 ‘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중복 쓰인 형태소가 혹시 돌림자가 아니었나 의심이 가는 것이다. 한편 아자가 인명의 머리자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부여국의 재상인 아란불(阿蘭弗)을 비롯하여 백제의 아화왕(아화왕)과 신라의 아달라니사금(阿達羅尼斯今), 백제 장인(匠人)인 아非知(아비지),阿斯達(아사달)과 견훤의 아버지인 아慈介(아자개) 등이다. 아非知는 신라 선덕여왕 15년(서기 646)에 건립한 황룡사(黃龍寺)「찰주본기」(刹柱本記)에 기록된 백제의 대장인(大匠人)의 이름이다.阿斯

고로 옮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故國川王	或云 國襄王(제9대)	國川	亦曰 國壤 乃葬地名
東川王	或云 東襄王(제11대)	東川王	~ []
中川王	或云 中壤王(제12대)	中川王	~ []
西川王	或云 西壤王(제13대)	西川王	~ []
美川王	一云 好壤王(제14대)	美川王	一云 好壤王
[]	~ 故國壤王(제18대)	[]	~ 國壤王

達 역시 불국사의 다보탑을 세운 백제의 장인명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밖에 『일본서기』에서도 阿利叱智干岐(아리질지간기), 阿羅斯等(아라사등), 阿利斯等(아리사등) 등이 나타난다. 고구려 유리명왕의 이름인 閻達(여달)을 비롯하여 장군 濶達(온달), 신라의 니사금 阿達羅(아달라), 백제의 장인 阿斯達(아사달), 후백제의 장군 富達(부달), 小達(소달), 尙達(상달) 등에 ‘達’이 거듭 나타난다. 천개소문의 아들 이름 ‘男生(남생), 男建(남건), 男産(남산)’에서 ‘男’이 거듭 나타나고 그의 손자들 이름인 獻誠(헌성), 獻忠(헌충)에서도 거듭 쓰인 ‘獻’이 발견된다. 그리고 후백제의 시조 견훤(甄萱)의 아들들 이름인 神劍(신검), 良劍(양검), 龍劍(용검)에도 ‘劍’이 거듭 쓰였다. 모두가 후일에 돌림자로 변하는 발단이 아니었나 의심하여 본다.

신라는 고유어의 이름을 6세기 말엽까지 사용하였다. 진흥왕의 이름이 심맥부(深麥夫)~삼맥종(三麥宗)(서기 540~575)이라 불렸고, 진지왕의 이름이 쇠돌이(舍輪金輪)이며 그 형의 이름은 구디돌이~쇠돌이(銅輪·東輪)이었다. 선덕여왕(서기 632~646)의 이름은 덕만(德曼)이었고 그 동생 진덕여왕(서기 647~653)의 이름은 승만(勝曼)이다. 이렇게 고유어로 호칭되던 왕명이 한자어로 바뀐 것은 태종무열왕 부자의 이름인 金春秋와 金法敏부터인 듯하다. 평민의 이름도 위에서 이미 소개한 인명 말고 더마라(提上=毛末), 사다함(斯多含), 이차도(異次道), 더리(毛禮), 솔거(率居) 등을 더 열거할 수 있다.

고구려의 왕명도 거의 말기까지 고유 이름으로 불렸으며, 백제는 제23대 삼근왕(三斤王)까지는 아명(兒名)을 그대로 왕명(王名)으로 불렀다. 제24대부터 동성왕(東城王)의 이름이 모대(牟大)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왕명이 이렇게 고유어 이름으로 불리었으니 백성들의 이름은 더 말할나위없이 고유어 이름으로 짓고 불렀을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IV

고대 국어에 쓰였던 존칭 접미사 가운데 ‘보’가 있다. 삼국 초기에 고위 관직명으로 쓰였던 대보(大輔), 좌보(左輔), 우보(右輔)의 ‘보’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어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이후로 ‘보’는 부(夫), 복(福/卜/伏), 파(波/巴)로도 차차표기되었다. 실예를 들면 명림답부(明臨答夫)는 고구려 초기의 국상(國相)이었고, 상부(相夫)는 고구려 봉상왕의 이름이었고, 구부(丘夫)는 소수림왕의 이름이었는데 모두 ‘부’를 접미하고 있다. 그리고 6세기 후반의 인물인 온달

(溫達)도 ‘바보’라 하였다. 신라어의 ‘부’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높았다. 널리 알려져 있는 이사부(異斯夫), 거칠부(居柒夫)를 비롯하여 심맥부(深麥夫), 노부(奴夫), 서력부(西力夫) 등과 같이 그 해당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 한편 이 ‘부’는 거칠부지(居柒夫智), 심맥부지(深麥夫智)와 같이 ‘지’와 결합하여 ‘부지’로 쓰이기도 하였다. 다만 선후관계는 고정적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지부’(智夫)의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신라 경덕왕 때의 기파랑(耆婆郎)의 이름 耆婆가 ‘길보/기보’라면 여기서도 독특한 표기의 ‘보’를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라 말기의 인물인 장보고의 본명은 궁파(弓巴)/궁복(弓福)인데 모두가 ‘활보’를 달리 표기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사동(蛇童)/사복(蛇卜/福/巴/伏)도 ‘뱀보’란 이름이니 여기서도 ‘보’가 확인된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의 ‘보/부’는 극존칭의 접미사였다. 그중에서 ‘보’(輔)는 삼국 초기의 국무 총리직에 해당하는 존칭 접미사이고, 상부, 구부는 고구려 초기 왕명의 ‘부’이고, 심맥부는 신라 진흥왕 이름의 ‘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림답부와 이사부, 거칠부는 국무총리와 대장군의 벼슬을 지낸 사람들의 이름에 접미한 ‘부’이다. 한편 ‘이사부(異斯夫):태종(荅宗), 심맥부(深麥夫):삼맥종(/多麥宗), 거칠부(居柒夫):황종(荒宗)’은 ‘夫:宗’과 같이 대응한다. 여기서 우리는 고유어인 ‘夫’(부)의 의미가 ‘宗’의 새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존귀’의 뜻인 ‘宗’은 ‘마루(마라)’와 ‘보/부’의 두 새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기에 왕의 시호가 ‘太宗, 定宗, 世宗, 文宗’ 등과 같이 宗(마루(마라))를 접미하고 있으며, 宗教 역시 ‘가장 높은 가르침’의 뜻이니 이 경우의 새김도 ‘마루’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어휘는 ‘궁보’(弓巴/弓福)와 ‘사보’(蛇卜/巴/伏)이다. 『삼국유사』 「사복불언」의 내용 중에

서울(경주)의 만선북리(萬善北里)에 한 과부가 남편없이 아이를 배어 낳았는데 (그아이는) 12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않고 또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동(蛇童)이라고 불렀다 —아래에서 혹은 사복(蛇卜) 또는 파(巴) 또는 복(伏) 등으로 적었으나 모두 사동(蛇童)을 이름이다.—

와 같이 ‘巴·福·卜’은 모두 ‘童’의 뜻이라고 하였으니 弓福은 ‘활보’이며 蛇卜은 ‘뱀보’인 것이다.⁶⁾ ‘뱀보’는 신라 진평왕(서기 617) 때 사람인데 12살까지 뱀처럼 기

6) 『三國遺事』 「蛇福不言」: 京師萬善北里有寡女不夫而孕既產 年至十二歲 不語亦不起 因号蛇童 - 下惑作蛇卜 又巴 又伏等 皆言童也

어다녔기 때문에 ‘뱀보’라 불렀다는 것이다. 만일 고구려 대무신왕(서기 7년~)의 아들 好童의 ‘童’이 ‘보’였다면 고구려어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의 ‘보’를 확인하게 된다. 적기는 ‘童’으로 부르기는 ‘보’라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구려 초기에 고위 관직명 접미사로 ‘보’가 쓰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온달(溫達)의 별명도 ‘바보’이다. 물론 ‘바보’에 대한 표기가 고문헌에 나타나지 않아 불안하지만 고구려어가 ‘보/부’를 활용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데 ‘바보’도 옛날부터 불리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뱀처럼 기어 다녔는고로 ‘뱀보’라 불렀다는 점과 고구려의 대무신왕 아들이 얼굴이 예뻐서 ‘호동(好童)이라 부른 사실과는 대조적이다. 어쨌든 삼국 초기에는 왕명이나 고위 관직명에 ‘보’를 접미하여 존칭의 뜻을 나타냈음이 분명하다. 초기에 쓰인 접미사 ‘부(夫)가 宗(종)의 뜻으로 사용된 사실이 증언하여 준다. 위의 ‘할보’(弓福), ‘뱀보’(蛇卜)/‘蛇童’(사동), ‘好童’(호동) 등에서 ‘보/童’이 이름짓는데 후부 요소로 쓰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부/보’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존칭의 뜻이 점점 희미하여져서 급기야 童(동)의 뜻에까지 이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초기에는 존칭 의미였던 ‘보/부’(夫/巴/福)가 宗童(마루)아이로 의미변화를 하였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는 ‘홍부, 놀부, 폐보, 곰보, 울보, 웃음보, 먹보, 똥똥보, 바보’ 등처럼 더욱 비칭(卑稱)화하였다. 본래는 한낱 표기어일 뿐 부르기는 반드시 ‘보/부’로 하였을 ‘동(童)도 결국은 한자어로 어휘화하여 ‘길동, 개동, 복동, 업동’ 등과 같이 이름짓는데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옛 날말에 존칭 접미사 ‘도리(都利)가 쓰였다. 신라 유리왕 때의 인명인 소벌도리(蘇伐都利)에 그것이 접미되어 있다. 고허촌장(高墟村長)을 ‘소벌도리’라 불었다고 『삼국유사』에 적혀 있으니 ‘도리’는 존칭 접미사에 틀림없다. 이 소벌도리를 일명 소벌공(蘇伐公)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니 ‘도리’의 뜻은 곧 공에 해당하는 존칭 접미사이다. 또한 신라 제22대 지증마리한(서기 500년)의 이름이 지도로(智度路/智大路/智哲老)인데 ‘도로’ 역시 ‘도리’와 동일한 존칭 접미사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좀더 후대로 내려 오면 신라 제25대 진지왕의 이름 쇠돌이(舍輪/金輪)에서 또 하나의 ‘도리’를 만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舍)는 金(금)과 대응하는데 金의 새김은 예로부터 ‘쇠’이니 ‘사’와 비슷한 음상(音相)으로 미루어 일단 ‘쇠’로 추독할 수 있다. 輪에 대한 현대의 새김은 ‘바퀴’이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바회’이었지만 고대국어 시기에는 그것이 ‘돌/도리(《돌다》)이었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 ‘사륜/금륜’은 ‘쇠도리’로 해독할 수 있다. 신라 제22대 지증왕의 이름이 ‘지도로’이고 부왕인 제24대 진흥왕의 이름도 고유어인 ‘심맥부’이다. 그런데 아들

대에 와서 한자어명으로 돌변하였을 리가 만무하다. 더욱이 부왕 때의 '이사부, 사다함'과 당대인 '거칠부'의 이름이 모두 고유어인 점을 감안할 때 '사륜/금륜'도 고유어 '쇠도리'이었을 것임을 신뢰케 한다. 그 고유어의 단서를 사륜(舍輪)의 '사' (舍)에서 잡을 수 있어서 위의 가정이 가능하다. 고구려 국원왕의 이름이 '쇠' (劉/斯由)이다. 그리고 고구려 말기의 개소문(蓋蘇文)을 '개금(蓋金)이라고도 하였으니 '소(蘇):금(金)'에서 역시 고유어 '쇠'를 발견한다. 금의 옛 새김이 '쇠'이기 때문이다. 비록 3예밖에 안되지만 옛날부터 '쇠'가 작명의 소재가 되었던 사실을 알려 주는 확실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국어 시기에는 '도리'와 '쇠'가 존칭 접미사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근세국어 시기에 와서는 비칭화하였다. 가령 '꿈도리, 꾀도리, 쇠돌이, 호돌이, 모돌이, 차돌이, 산돌이, 갑돌이' 등을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변강쇠, 가마쇠, 구두쇠, 한쇠, 작은쇠, 덕쇠, 마당쇠, 사랑쇠, 돌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돌이'와 '쇠'는 접미어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접두어로도 쓰였다. 가령 '돌납이, 돌동이, 돌레, 돌복이, 돌맹이, 돌무덕' 등과 '쇠고리, 쇠납이, 쇠동이, 쇠돌이, 쇠바우, 쇠노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조어 기능이 전후 어느 위치에서나 발휘될 수 있음은 단적으로 '쇠돌이:돌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돌이'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서기 1617)에 '니돌대, 돌함, 돌금, 돌개'로 나타난다. 이 '돌이', '쇠'가 접두하거나 접미한 이름에는 성씨가 없다. 이처럼 본래의 존칭 접미사는 비천한 신분을 의미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비하하였다. 그런가하면 이름을 짓는데 있어서 보편적인 어소로 활용되어 온 점을 특기할 수 있다.

❖ 인용문헌

- 도수희. 「백제의 국호에 관한 몇 문제」. 『백제연구』(충남대 백제연구소) 22, 1991.
 _____. 「백제의 왕명 인명에 관한 연구 (i)」. 『백제논총』(백제문화개발연구원) 2, 1992.
 _____. 「백제의 왕명 인명에 관한 연구 (ii)」. 『백제논총』(백제문화개발연구원) 5, 1996.
 _____. 「삼국사기의 고유어에 관한 연구」. 『동양학』(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6, 1996.
 _____. 「삼국사기의 국어사 자료와 관련된 몇 문제」. 『백제어연구』(백제문화개발연구원) 3, 1994.
 _____. 「존칭접미사의 생성 발달에 대하여」. 『새국어생활』(국립국어연구원) 10.1,

2000.

- _____. 「한국 성명의 생성 발달」. 『새국어생활』(국립국어연구원) 9.4, 1999.
- _____. 「漢城시대 백제의 건국과 국명 및 초기의 왕명」. 『백제논총』(백제문화개발연구원) 4, 1994.
- 유창균. 「고구려 인명에 관한 연구」. 『동양학』(단국대 동양학연구소) 5, 1975.
- 이기문. 「신라어의 ‘복’ (福)에 대하여」.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49Σ50, 1970.
-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서울: 을유문화사, 1980.
- 이휴승(1287), 『제왕운기』(帝王韻紀), 아세아문화사.
- 이홍직. 「백제인명고」. 『논문집(인문사회과학)』(서울대학교) 1 (1954).
- _____. 「연개소문(淵蓋蘇文)에 대한 약간의 존의(存疑)」.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서울: 일조각, 1956.
- 황의돈. 「조선 성씨의 기원과 발달」. 『조선일보』(한국학연구총서1에 재록), 성진문화사, 1935.
- Kim, Chin-W. “The Indian-Korean Connection Revisited,” *Korean Linguistics* 3, 1983.
- Toh, Soo-He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Paekche Language and the Kara Language in Korea,”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16.2, 1986.

[Abstract]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orean Names

Soo-Hee Toh

(Professor Emeritu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Korean names, focusing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literal meanings of those for kings and ordinary people. Roughly speaking, the Korean surname system traces its source to China. Historical records show that the Chinese were already using their family names around 1000 B.C. After a millennium or so, the Korean began to follow suit. Initially, however, surnames were in regular use among kings and their kin only: it was not until the late Shilla dynasty, around A.D. 800, that the commoners began to have their surnames. And yet, surnames still tended to be limited to men of noble birth, until around A.D.

1000.

Though the Korean surname system may be said to have its origin in Chinese, there are no lack of native surnames that have as long a history, e.g., *Hae*, *Bak*, *Sök*, *Söl*, *ŭl*, and *Öl*. Typical surnames of Chinese origin that are found during the late Shilla dynasty, around A.D. 900, include *Jang* (as in *Jang Bogō*) and *Choi* (as in *Choi Chiwŏn*). Unlike those of Chinese origin, typical Korean names during the age of Three Nations tended to allude to nature or natural phenomena, as can be witnessed in *Bit* 'light,' *Balgŭm* 'bright,' *Nuri* 'world,' and *Soidori* where *soi* means 'steel' and *dol* 'stone.' Other surnames abound that have to do with river, stream, field, prairie, and so on. King *Muryŏng*'s original name was *Sama*, a variant of *sŏm* 'island,' indicating where he was born. A person skilled in archery was called *Jumong* or *Hwalbo*. *Baembo* was so called because he 'crawls like a snake, *baem*.' In these last two examples, *bo*, as well as its variant *bu*, functions as a suffix, and is also found in *Gŏchilbu*, *Isabu*, *Babo*, *Nolbu*, *Hŭngbu*, etc. The tradition of using this kind of native Korean names has gradually disappeared, giving place to the names of Chinese style—although very recently we see an on-going movement toward using native names.